

#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14, 해석, 역사적 배경, 본문 비평, 야고보서 1:5의 지혜의 말씀 연구

© 2024 Dave Bauer 및 Ted Hildebrandt

이것이 David Bower 박사와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4, 야고보서 1장 5절의 해석, 역사적 배경, 본문 비평, 지혜의 말씀 연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증거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곡점을 통해 계속 작업해왔으므로 이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굴절을 떠나기 전에 그것에 단 하나의 태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명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동사와 관련된 굴절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는 또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열쇠를 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것이 크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 시제에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만약 당신이 그 어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열쇠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베드로와 아마도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가질 것이지만 마태복음 16장의 이 시점에서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키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

적어도 굴절은 열쇠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마태복음 16장의 현 시점에서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마태복음 16장과 관련하여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에는 실제로 두 가지 수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의 책 자체의 역사적 배경이다. 즉, 언제 쓰여졌는지,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글을 쓴 계기가 무엇인지 등의 모든 내용은 물론 작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책 내에서 말하거나 행동하십시오. 이런 종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본 장소는 무엇보다도 성경사전입니다.

어떤 성경 사전이든, 우리는 이전에 이러한 배경 문제를 논의할 다양한 성경 책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서 또는 구약성서 소개 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신약의 서론이나 구약의 서론은 실제로 역사적 배경, 즉 다양한 책들의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내 사역을 위한 필수 성경 공부 도구에는 신약성서 소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역사적 배경은 책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의미하는 것은 텍스트 내의 암시, 텍스트 내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언급된 내용이 있고 작가는 원래 독자가 그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역사적 맥락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작가와 독자는 역사적 맥락을 공유한다. 우리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텍스트를 의도하는 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식 역량을 갖기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땅의 비유와 관련하여 13장 3절과 4절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땅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파종 방법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이 아마도 봉지에 씨앗을 담아서 마음껏 던지면 다양한 종류의 토양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흙을 시험하여 흙이 좋은지 확인하고,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설명하시는 이 씨

뿌리는 방법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씨 뿌리는 방법이 그 역사적 맥락에서 일반적인 씨 뿌리는 방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씨뿌리기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 따르면 이것이 결코 전형적인 파종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파종은 훨씬 더 일반적이었고 거의 독점적으로 토양을 테스트하고 씨앗이 좋은 땅에만 뿌려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달리 씨앗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자는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당신은 씨앗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존 놀란(John Nolan)이 이 문제에 대해 논평하면서 올바른 정신을 가진 농부라면 이런 방식으로 파종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 중 하나,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소개하시는 눈길을 사로잡는 것 중 하나가 씨 뿌리는 사람의 씨 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것이 매우 특이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방법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시며, 이것이 이 비유의 요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일련의 비유 중 다음 비유인 가라지의 비유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30절에서 그는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잡초라는 단어는 진자니아(zinzania)이며, 이는 당시 세계의 그 지역에 알려진 특정 종류의 잡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물, 그런 잡초의 특징 중 하나는 수확이 가까워질 때까지는 사실상 밀과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어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함께 뽑아 버리게 놔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물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잡초의 뿌리 체계인 진자니아 식물이 주변 밀 식물의 뿌리 체계와 불가분하게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과 함께 잡초를 뽑지 않고는 잡초를 뽑는 것이 불가능하였느니라.

그런데 역사적 배경도 랍비들 사이에서 이런 식물인 진자니아(zinzania)와 그것이 품고 있는 독성 포자를 일종의 약에 대한 은유로 여겼다는 것을 역사적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매우 명확해집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여기 이 이야기에서 갖고 있는 내용을 크게 명확하게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유형의 증거는 텍스트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 비평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는 본문 비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성경이 전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상대적으로 늦게 등장한 인쇄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사본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성서의 필사본 전통에는 많은 오류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감받은 작가들이 실제로 쓴 내용을 가능한 한 가장 잘 식별하는 것이 목적, 주요 목적인 전체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원고 전통에 스며들었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오류 중에서 텍스트의 원래 표현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두 가지 유형의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오류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 청각 또는 시각의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서기가 원고를 복사할 때 서기가 단어를 잘못 읽거나 단어를 간과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고 전통에 오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청력의 오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버전의 책 대량 생산은 방이 있어야 했고, 큰 방에는 스님들이 가득했고, 큰 스님이 방 앞에 서서 경전을 읽고 있었고, 모든 것이 스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작은 승려들은 그들이 들은 것을 적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스님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거나 작은 스님 중 한 명이 제대로 듣지 못해 단어를 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입니다. 모순이 아니라면, 말하자면 의도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서기관이 본문을 인용하고, 인용을 해제하고, 수정하려고 시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텍스트를 수정하고, 인용하고, 인용 해제하겠습니다. 의도적인 오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비평이라는 매우 정교한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것들을 고려하고 정교한 과정을 기반으로 무엇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텍스트의 원래 표현.

물론 이것은 해석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본문이 영감받은 작가가 실제로 쓴 것인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의 일부로 소위 마가복음의 긴 결말(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첫째, 아마도 2세기 초에 복음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그의 생각에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누가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8장을 조합한 것입니다. 이는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우리는 마가복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다른 구절이 있거나, 서기관이 추가했거나 필사 오류 등을 반영한 다른 읽기가 여기 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비평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은 본문 비평의 전문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원문 전통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RSV나 NIV와 같은 버전의 각주와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텍스트 변형 등.

번역본에 나타나는 다시 읽기, 예를 들어 RSV는 번역가의 판단에 따라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영감을 받은 원저자의 표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주석을 활용한다면 주석가는 종종 텍스트 변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토론을 접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증거는 전통의 역사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설명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다른 부분보다 특히 복음서에 대해 생각하는 전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즉, 텍스트의 최종 형태에는 일종의 선사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복음서에는 실제로 네 가지 수준의 선사 시대가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 즉 예수께서 실제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행하신 행위와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 직후 몇 년 동안 예수 전통이 일종의 구두로 전달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입에서 입으로, 특히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통해 퍼졌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들과 다른 목격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전통은 글로 축소되었고, 따라서 글로 된 출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복음서 기자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이용 가능한 전통을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그들이 이용 가능한 서면 출처와 이 전통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계속해서 유포하고 형성한 구전 전통입니다.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했던 영감받은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그 중요한 학문과 비판적 연구는 이러한 각 수준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비판적 접근 방식을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듯 실제로 귀납적 접근 방식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텍스트의 최종 형태에 대한 전통의 역사가 실제로 텍스트의 최종 형태를 밝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본문 비평과 전통의 역사에 관해 말했듯이, 여러분 중 대부분이 이러한 비판적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심지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본문 뒤에 있는 일종의 전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즉 우리가 마지막 복음서에 있는 것을 향한 전통의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절하고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최종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논평을 접할 수 있다면 종종 이런 종류의 토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해설을 활용하면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주석에 관해 말하자면 이러한 유형의 증거 중 마지막 증거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해석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한, 학자들의 해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통 주석서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을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과 직접 연구하여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주석의 선택과 관련하여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건한 주석,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 주석에 반대되는 주석 주석의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의적 주석이 꼭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석적 주석이란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주석을 의미합니다. 반면, 묵상 주석의 목적은 본문과 관련된 특정 묵상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주석을 위한 장소가 있는데, 그 중 최고 중 하나는 매튜 헨리(Matthew Henry)의 매우 고전적인 주석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논평을 위한 장소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해석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적 주석과 대조되는 주석적 주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해설의 목적은 설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며 때로는 설교 개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묵상 주석만큼 설교 주석의 가치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설교자가 실제로 자신의 설교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중고로 얻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신이 설교적 주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석적 주석입니다.

가장 좋은 유형의 주석 주석은 주석가가 본문 해석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주석가가 자신이 생각하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를 인용하고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인용된 증거의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합니다. 가능하다면 현대의 최신 주석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시대를 대표하는 주석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이러한 주석을 활용해야 하지만 가능하다면 교부들의 주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대 기독교 성경 주석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마스 오든(Thomas Oden)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성경 전체에 걸쳐 있으며, 모든 구절마다 그는 교부들 중에서 선택된 2~5개의 간단한 주석 구절을 줄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교부들로부터 엄선된 주석이지만, 이 시리즈가 우리에게 교부적 주석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도움이 됩니다. 칼빈은 훌륭한 주석가였습니다.

칼빈의 주석을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큰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도 종교개혁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초기 경건주의 또는 청교도 시대부터 요하네스 벵겔(Johannes Bengel)은 다시 한 번 훌륭한 주석가 등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 대한 주석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 최근의 주석 등입니다. 특히 여기서 해석의 역사를 다룰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단순히 주석가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석가와 비판적인 대화, 주석가와 비판적인 상호 작용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석가가 말하는 내용은 본문을 직접 연구하면서 발견한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논평의 해석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 실제로 상호 작용과 대화를 통해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각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증거로부터 증거를 인용하고, 증거를 인용하고, 증거에 대해 토론하고, 인용된 각 증거에서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기된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이 증거는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론 증거에서 해석적 결론으로 이동할 때 논리가 건전한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야고보서 첫 장, 특히 야고보서 1장 5절의 한 구절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해석 방법을 활용하여 해석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여기 1, 5절에 있는 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예비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어로 소피아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auer-Danker는 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기능하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Thayer는 그것을 지혜, 광범위하고 완전한 지능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정의로부터 어떤 종류의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글썄, 그들은 성격의 측면에서 지혜가 실제로 지식이나 이해, 사고의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범위 측면에서 보면 지혜에는 완전하거나 완전한 지식, 이해,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지식 또는 이해가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맥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맥락에서 나온 증거가 가장 중요한 종류의 증거이므로 증거에서 너무 빨리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른 증거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일부 독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야고보는 그의 독자들을 반복적으로 형제로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독자임을 나타냅니다. 책 전체에는 제임스가 그의 독자들을 선의로, 즉 진정한 맥코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다른 징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고보가 여기서 묘사하는 지혜가 일반 사람들에게 내재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도 내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즉, 그는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계속해서 문맥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다른 것에서 이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세한 관찰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활용하고 이를 증거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누구에게서나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는 야고보가 묘사하는 지혜가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의 차원에 속하지 않고 초월적이고 신성한 현실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인간적 또는 세상적 지혜와 신적 지혜 사이의 구별이나 대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문맥에 따른 증거를 계속 살펴보면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와 9장부터 15절까지에 설명된 특정 목적에 대한 일반적인 수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사와 상세한 관찰을 통해 1.5절부터 8절까지의 지혜가 2절부터 4절과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시련 가운데서도 굳건함에 관한 그의 권고를 성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상황은 분명히 특정한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반면, 주변 상황은 특정한 외부 상황, 즉 시련에 직면하고 특히 부자의 억압 형태의 시련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로 제시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도전에 응하고 이 상황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탁월한 요구 사항으로 제시됩니다. 이 모든 것은 독자들이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인내의 길을

둘러싼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수단이라는 우리의 추측을 실제로 뒷받침합니다. 그러므로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지혜, 즉 시련과 유혹을 잘 견디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한 수단을 제시할 수 있는 반면, 2절부터 15절까지의 특별한 권고와 설명은 시련에 대한 합당한 대응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지혜가 구체적으로 시련이나 유혹에 대한 합당한 대응, 또는 적어도 시련이나 유혹에 합당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반응에만 절대적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시련이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문맥에서 나온 증거를 살펴보고 예비적 정의에 따르면 지혜에는 정신적 이해 또는 이해가 포함되는 반면, 3절에서는 지식이, 9절부터 9절까지는 시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15절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9절부터 11절까지와 시련을 견디는 것과 시험의 본질과 근원을 아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주목합니다. 반면에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지혜 모티프는 속임을 당하는 것과 속임을 당하는 것 사이의 대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3장 13절에서 지혜는 너희 가운데 명철하고 지혜로운 명철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은 지혜가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생각, 지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의 전제들, 이것이 문맥에서 나온 증거적 전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적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1장 2절부터 27장까지와 이 책 전체에 걸친 궁극적인 관심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이지만, 선언은 권고로 이어지는 기초 역할을 한다.

선언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으며 항상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서신은 올바른 행동과 동떨어진 올바른 생각의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나는 다양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은 그 구절을 보면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서평에서 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지혜의 사용은 여기서 지혜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주로 행동, 행동과 관련이 있고 생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에 서신 자체는 지식과 올바른 생각을 전달하므로 이것이 지혜의 주요 내용이라면 독자들은 그 경우의 성격상 지혜가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증거는 지혜가 주로 행위, 올바른 행동, 행위에 대한 강조, 문맥에서 증거를 계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야고보서의 지혜는 생각과 행동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서신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행동 사이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책 전체에 걸쳐 올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 지시적 지식이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있으며, 이 모든 연결은 1장 22절부터 25절, 2장 1절, 그리고 다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에서 명시적으로 설명됩니다. 올바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혜가 부족하면 완전성과 완전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포괄성과 일관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 부족함, 부족함은 완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한 반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지혜는 선하고 완전합니다. 즉 완전성, 온전함, 일관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는 지혜가 다음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행동의 일치와 일관성을 포함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지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이해에 있어서의 지혜와 행동에 있어서의 지혜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을 주장합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참되게 된다고 주장한 것처럼, 참된 지혜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참됩니다.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는 선한 생활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한 일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2장 18절에서 믿음과 행함에 관해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는 지혜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의 일치와 일관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맥을 요약하면 이 지혜는 신성하고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나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다.

또한 1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지혜는 주로 시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에 관한 것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셋째, 지혜에는 주로 올바른 생각, 지적인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로 올바른 행동, 행동; 또는 세 가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 그리고 둘 사이의 비판적 연결입니다.

이제 단어 용법에 관해 저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발생을 논의한 다음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추론과 가능한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른쪽. 일반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소피아는 지식, 이해, 통찰, 지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지식, 심지어 계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 통찰, 즉 분별력이나 판단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지혜가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지식, 이해 또는 통찰력을 주로 포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신약성경의 단어 용법에 있어서는 지적인 요소, 즉 아는 요소가 강조되기는 하지만 때로는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이해의 역할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추론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지혜가 지식이나 이해와 의로운 행동 사이의 연관성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셋째, 특히 바울에게서는 인간의 지혜와 신적 지혜가 대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불신과 관련된 이 악하고 신이 없는 시대, 한편으로는 정사와 권세,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별하는 데 선호되는 바울의 방법입니다. ,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신적이거나 경건한 지혜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경건한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신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기독교론적이며, 때로는 거의 가설적으로,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세대 동안 감춰졌으나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졌던 신비가 드러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이다.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그 근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하고 은혜로운 계시가 아니면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이제 이것은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지혜가 먼저 신적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지혜 사이의 암묵적인 대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죽음, 우주적 주권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 즉 메시아 시대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드러나는 종말론적 종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지혜는 인간의 사고 기술이나 능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없고 오직 신적 계시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신약성서의 단어 용법입니다. 지혜와 성령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만 결코 완전한 동일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은 때로 지혜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지혜로 충만함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지혜가 성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신약성서에서 지혜는 비록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설득력 있는 말이나 설득력 있는 논증과 관련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는 야고보서 1:5부터 8까지의 지혜에는 설득력 있는 말이나 설득력 있는 논증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때로는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속지 말라는 경고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 두 구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단어들은 나중에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용법과 문맥에 관해서, 즉 신약의 용법과 문맥과 관련하여, 우리가 다음을 사용할 때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약성서의 단어 사용법에 있어서, 그 단어가 다른 신약성서의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그 단어가 당신의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이의 비판적인 대화에 참여하여 그 단어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모든 구절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무비판적으로 당신의 구절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단어 사용과 문맥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야고보서 자체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사실, 야고보서에서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지식과 통찰력에 대한 주요 거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약 성경의 단어 용법에 기초하여 야고보서의 지혜가 주로 지적 차원을 포함하고 의롭거나 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이차적인 관심을 포함할 수 있다는 숫자 1과 2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춰두셨던 비밀인 그리스도의 계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사실 야고보서의 기독론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숫자 4와 5와 관련이 있으며 지혜에 대한 바울의 강조와 야고보서의 지혜에 대한 묘사 사이에 상당한 불연속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4장과 5장에 해당되는데, 신약에서 지혜는 종종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주적 주권에 중심을 둔 오랫동안 숨겨졌던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를 포함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전체 이전에 대한 James Barr의 경고와 관련하여, 야고보가 1:5에서 지혜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히 부적절할 것인지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보편적인 주권. 제임스가 여기서 특정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에게는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주목합니다. 야고보 자신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서신에서 성령에 대해 언급합니다. 7번과 관련하여 신약성서에서 종종 지혜와 성령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명백한 우려는 확실히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유창한 말이나 설득력 있는 주장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숫자 8과 관련이 있으며, 신약성서에는 설득력 있는 말이나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5장에서

인간의 지혜와 우리가 신약성서 전체에서 발견한 신의 지혜를 매우 분명하게 대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지혜를 속지 않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지혜 사용은 신약 전체의 지혜 사용과 일반적으로 상당히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야고보서에서 신약의 단어 사용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구약성서의 단어 사용 측면에서 이는 70인역에서 소피아가 사용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술이나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올바른 행동, 경건한 삶이라는 의미로 가장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지혜 전통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여기에는 현실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해가 포함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진 현실을 이해하는 구약성서의 지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고 배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때로, 특히 후기 유대교에서는 외경과 위경 그리고 구약의 후기 부분에 반영된 것처럼 위격적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활동, 특히 창조 활동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세상의 삶에서 그의 지속적인 활동.

분명히 제임스에게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용도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A, 구약의 지혜 전통이 야고보에게 미친 영향, B, 야고보의 지혜가 하나님의 실재와 그분의 계시를 중심으로 삶 전체의 질서를 수반한다는 개념에 대한 강력한 상황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1:5-8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현실을 계시하신 대로 현실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올바른 행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Sophie Laws는 자신의 결론에 따르면 지혜는 온전함과 완벽함을 만들어내는 통일된 유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의 근거나 기초도 포함합니다. 그녀는 증거 맥락으로 인용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완벽함과 완전함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체성과 완벽함을 만들어내는 이 사업은 올바른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초가 되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통합하는 통합 유대가 됩니다. 또한 그녀는 문맥을 인용하여 그것이 3:13-18에 나오는 용어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단어 사용법에서 그것이 때때로 지혜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Law의 증거 사용이 특히 문맥에서 정확하고 논리적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비록 단어 사용에서 얻은 증거는 다소 드물고 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추론에서 나타나는 주요 가능성을 식별합니다. 그 지혜는 A, 아마도 지적 통찰력 및 이해와 관련이 있거나, 지혜는 본질적으로 행동의 올바른 행동과 관련이 있거나, 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현실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의 일치.

따라서 우리는 위의 추론으로부터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증거에 기초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리한 증거가 있는 가능성을 결정하고 내 판단으로는 그것이 c일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해석이자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단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실제로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부분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는 야고보서 1:5-8에 대한 해석의 최종 결론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David Bower 박사와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4, 야고보서 1장 5절의 해석, 역사적 배경, 본문 비평, 지혜의 말씀 연구입니다.